

© International Baccalaureate Organization 2023

All rights reserved. No part of this product may be reproduced in any form or by any electronic or mechanical means, including information storage and retrieval systems, without the prior written permission from the IB. Additionally, the license tied with this product prohibits use of any selected files or extracts from this product. Use by third parties,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publishers, private teachers, tutoring or study services, preparatory schools, vendors operating curriculum mapping services or teacher resource digital platforms and app developers, whether fee-covered or not, is prohibited and is a criminal offense.

More information on how to request written permission in the form of a license can be obtained from <https://ibo.org/become-an-ib-school/ib-publishing/licensing/applying-for-a-license/>.

© Organisation du Baccalauréat International 2023

Tous droits réservés. Aucune partie de ce produit ne peut être reproduite sous quelque forme ni par quelque moyen que ce soit, électronique ou mécanique, y compris des systèmes de stockage et de récupération d'informations, sans l'autorisation écrite préalable de l'IB. De plus, la licence associée à ce produit interdit toute utilisation de tout fichier ou extrait sélectionné dans ce produit. L'utilisation par des tiers, y compris, sans toutefois s'y limiter, des éditeurs, des professeurs particuliers, des services de tutorat ou d'aide aux études, des établissements de préparation à l'enseignement supérieur, des fournisseurs de services de planification des programmes d'études, des gestionnaires de plateformes pédagogiques en ligne, et des développeurs d'applications, moyennant paiement ou non, est interdite et constitue une infraction pénale.

Pour plus d'informations sur la procédure à suivre pour obtenir une autorisation écrite sous la forme d'une licence, rendez-vous à l'adresse <https://ibo.org/become-an-ib-school/ib-publishing/licensing/applying-for-a-license/>.

© Organización del Bachillerato Internacional, 2023

Todos los derechos reservados. No se podrá reproducir ninguna parte de este producto de ninguna forma ni por ningún medio electrónico o mecánico, incluidos los sistemas de almacenamiento y recuperación de información, sin la previa autorización por escrito del IB. Además, la licencia vinculada a este producto prohíbe el uso de todo archivo o fragmento seleccionado de este producto. El uso por parte de terceros —lo que incluye, a título enunciativo, editoriales, profesores particulares, servicios de apoyo académico o ayuda para el estudio, colegios preparatorios, desarrolladores de aplicaciones y entidades que presten servicios de planificación curricular u ofrezcan recursos para docentes mediante plataformas digitales—, ya sea incluido en tasas o no, está prohibido y constituye un delito.

En este enlace encontrará más información sobre cómo solicitar una autorización por escrito en forma de licencia: <https://ibo.org/become-an-ib-school/ib-publishing/licensing/applying-for-a-license/>.

**Korean B – Higher level – Paper 2 – Reading comprehension**  
**Coréen B – Niveau supérieur – Épreuve 2 – Compréhension écrite**  
**Coreano B – Nivel Superior – Prueba 2 – Comprensión de lectura**

9 May 2023 / 9 mai 2023 / 9 de mayo de 2023

<b>Zone A</b> morning	<b>Zone B</b> afternoon	<b>Zone C</b> morning
<b>Zone A</b> matin	<b>Zone B</b> après-midi	<b>Zone C</b> matin
<b>Zona A</b> mañana	<b>Zona B</b> tarde	<b>Zona C</b> mañana

1 h

---

**Text booklet – Instructions to candidates**

- Do not open this booklet until instructed to do so.
- This booklet accompanies paper 2 reading comprehension.

**Livret de textes – Instructions destinées aux candidats**

- N'ouvrez pas ce livret avant d'y être autorisé(e).
- Ce livret accompagne la partie de l'épreuve 2 portant sur la compréhension écrite.

**Cuadernillo de textos – Instrucciones para los alumnos**

- No abra este cuadernillo hasta que se lo autoricen.
- Este cuadernillo acompaña a la parte de comprensión de lectura de la prueba 2.

본문 A

## 키오스크 포비아, ‘무인기계가 두려운 노인들’

비필수 이미지 삭제됨

올해 초 유튜브 스타로 유명한 ‘김점순 할머니(Korean Grandma)’ 채널에는 ‘점순이는 가고싶어도 못가는 식당’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1947년생인 김점순 씨가 한 패스트푸드점에 설치된 키오스크(무인주문기계)를 사용하는 영상이다. 사용 전부터 김점순 할머니는 무인 주문에 대한 두려움을 호소했다. 김 할머니는 “이제는 정말 우리에게는 맞지 않는 세상이 왔다”고 한탄했다.

최근 은행 ATM부터 병원비 수납, 음식 주문 등 생활 전반에 무인시스템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더 적은 인력으로 더 빠르고 편리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이 무인시스템의 장점이다. 그러나 노년층은 키오스크가 늘어날 수록 더욱 일상생활에 불편을 느낀다.

서울시 종로구에 위치한 한 햄버거 매장에는 ‘키오스크로 주문하면 빠르게 주문할 수 있습니다’라는 안내가 기계 화면에 크게 적혀있다. 그러나 매장을 찾은 대부분의 노인들은 키오스크에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햄버거 가게에서 주문을 기다리던 김수호 씨(75·남)는 “음식점에 무인 주문기가 있어도 직원에게 주문하는 게 오히려 더 편하다”고 말했다. 최근 일부 병원에서는 진료 시스템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무인 접수기계를 크게 늘렸다. 기계를 통해 번호표도 뽑을 수 있고, 다양한 기능이 들어있다. 하지만 노인들에게는 혼란만 늘어날 뿐이다.

키오스크는 많은 곳에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노인들은 이런 변화가 반갑지 않다. 지난 7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0년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키오스크로 식당 주문을 해본 노인 중 64.2%가 불편함을 느꼈다. 키오스크보다 일찍 보편화된 ATM 기기도 노인 38.4%가 사용에 불편함을 느낀다고 답했다. 이에 노인들도 사용하기 편리한 노인을 위한 키오스크 설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정부에서도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다.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능정보화 기본법을 발표했다. 지능정보화 기본법은 고령자·장애인 등 디지털 취약계층의 정보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법이다. 디지털 소외계층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키오스크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정부 포상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또한 노인들이 더 편리하게 키오스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설문조사를 거쳐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노인센터 등을 중심으로 디지털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앞으로 어려운 키오스크가 아닌, 누구나 사용하기 쉽고 편한 키오스크가 많이 보급될 예정이다. 디지털 소외화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는 점이 희망적이다.

본문 B

불편한 편의점

비필수 이미지 삭제됨

늦가을도 다 지나가던 저녁, 사장님이 한 남자와 편의점에 들어섰을 때 시현은 입이  
떡 벌어지지 않을 수 없었다. 그녀는 남자의 인상에서 수염이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  
크다는 걸 처음으로 실감하게 되었다. 남자도 여자도 ‘머리발’이 있다는 건 알고 있었으나,  
5 답수룩하고 아무렇게나 자란 잡초 같던 콧수염과 턱수염을 말끔히 정리한 독고 씨의  
얼굴을 본 순간, 언제나 멀리하고 싶던 노숙자가 아닌 번듯한 친척 아저씨를 떠올릴 수밖에  
없었다. 게다가 머리 역시 짧게 자르고 그 구정물로 뽀얀 것 같은 점퍼와 면바지 대신 통이 큰  
셔츠에 청바지를 입은 독고 씨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보였다. 눈이 좀 작긴 해도 오흘한  
콧날과 수염이 없어져 말쑥해진 입매에 강인해 보이는 턱선에서는 남성미까지 느껴졌다.  
10 게다가 넓은 어깨와 등판은 듬직함을 더했고 엉거주춤한 자세도 똑바로 서자 키도 더 커  
보였다.

환골탈태한 독고 씨를 데리고 온 사장님은 마치 자신이 만든 로봇이라도 소개하듯 뿌듯한  
표정으로 시현에게 그가 야간 알바를 맡을 거라 말했다. 헐. 잠시 독고 씨의 변신에 좋은  
인상을 받았던 시현의 마음에 먹구름이 몰려왔는데, 심지어 사장님은 독고 씨의 매장 업무  
15 교육을 시현이 맡아줄 것을 제안하는게 아닌가. 오 마이 갓! 사장님의 제안은 곧 지시가  
아닌가.

시현은 직원 교육은 아무래도 교육자로서의 경험이 풍부한 사장님께서 더 잘하실 것  
같다고 나름 둘러댔으나 바로 묵살되었다. 포스기\* 사용법이나 접객 모두 젊은 시현이 더  
센스 있다는 게 그 이유였고, 사장님은 사장님대로 야간에 물건을 받는 것이나 매장 제품  
진열을 가르치겠다고 했다. 시현은 어쩔 수 없이 수긍했다. 이제 자신과 사장님이 독고  
20 씨를 이 편의점의 일꾼으로 만들어야 했다. 공백이 생긴 야간 알바를 언제까지나 사장님이  
맡아 할 수는 없는 노릇이기 때문이다.

시현은 이곳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노숙자 독고 씨의 변신을 도와야 했다. 그에게 폐기  
도시락을 챙겨줄 때는 선행을 한다는 생각에 기분이 좋았다. 하지만 정식으로 그에게  
교육을 시키고 소통을 한다는 건 꽤나 부담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었다. 그녀는 먼저  
25 더듬거리는 독고 씨의 말투에 익숙해져야 했다. 굵직한 그의 행동거지에도 적응해야 했다.  
무엇보다 씻고 왔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은근하게 풍기는 노숙자의 냄새를 참아내야 했다.

\* 포스기: 상점의 전자식 금전 처리기

본문 C

## 도시 공간의 치유가 가져온 변화들

비필수 이미지 삭제됨

수명을 다한 건축물과 오래된 산업 시설, 노후화된 주거 지역들이 최근 도시 재생이라는 방법으로 변화하고 있다. 발길이 뜸해지고, 버려지고, 잊혔던 장소들이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고 사람들이 다시 모여들면서 공간 자체는 물론 그곳에 일상을 기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까지 변화시키고 있다.

5 **[- 32 -]**

전쟁의 잿더미에서 일어난 한국은 지난 60여 년에 걸쳐 비약적인 경제 발전을 이루었다. 그러나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를 거치며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들은 이제 노후화된 도시 공간을 어떻게 재생할 것인가라는 어려운 과제에 직면해 있다. 그런 가운데 최근 큰 관심을 끌고 있는 것이 도시 재생 사업이다.

10 **[- 33 -]**

구 서울 도심 전자 제품 쇼핑의 명소였던 세운상가의 변신은 철거 위기에 봉착해 있던 오래된 건물이 화려하게 부활한 대표적인 경우이다. 1968년 준공된 세운상가는 서울을 동서로 가로지르는 종로와 청계천을 중심으로 도심의 주요 도로를 연결하며 지어진, 남북 전체 길이가 1km에 달하는 대규모 주상복합 건물이다. 전자 제품의 메카였던 세운상가는

15 당시에는 새로운 스타일의 주거 지역으로 이름이 높았다. 하지만 1980년대에 들어 다른 지역이 발전하고, 주변 지역마저 슬럼화되어 1990년대에는 철거 및 재개발 지역으로 지정되었다. 사라질 운명에 처했던 이곳에서 본격적인 도시 재생 운동이 일어난 건

20 2015년부터다. 세운상가의 전자 제품 수리 장인들의 뛰어난 기술력에 젊은 예술인들의 재능이 결합하고, 여기에 3D 프린트, 드론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이 더해지면서 이곳은 예술과 기술, 문화가 융합된 새로운 공간으로 재탄생되고 있는 중이다.

**[- 34 -]**

도심의 버려진 작은 현대사 공간을 부활시킨 재미있는 사례도 있다. 역의도에 있는 세마(SeMA) 벙커이다. 1970년대에 지어진 이 지하 벙커는 유사시 대통령의 대피를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게 버려져 있던 이 공간은 2017년 서울시립미술관 산하의

25 ‘벙커미술관’으로 개관돼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 - 35 - ]**

30 포천아트밸리는 낡은 산업 시설이 도시 재생 사업을 통해 어떤 모습으로 변화했는지 잘 보여 주는 또 하나의 선도적 사례이다. 포천은 서울의 북쪽에 위치한 소도시로 화강암을 캐던 유명한 채석장\*이 있었다. 하지만 1990년대 중반부터 채석 산업이 쇠퇴하기 시작했고, 이후 이곳은 버려진 흉물스런 공간이 되었다. 이에 포천시는 2003년 이곳을 복합 문화 공간으로 개조하는 사업을 시작했다. 인공호수를 조성하고, 주변에 조각 공원과 크고 작은 야외 공연장도 만들었다. 2009년 10월 개장한 포천아트밸리는 이제 한 해 방문객 수가 40만명을 넘으며, 2017년에는 경기도 유망 관광지에 선정되었다.

**[ - 36 - ]**

35 노후화되었거나 방치된 도시 공간에 새 생명을 불어넣는 도시 재생 사업은 환경을 개선하고, 사회 문화적 활동을 통해 주민들의 정신 건강과 유대를 강화하는 사업이다. 또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한다. 다만 해당 지역 고유의 정체성과 특성을 매력적으로 살려내는 설계가 필수적이라는 고민은 늘 뒤따라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도시 재생은  
40 사람들의 삶까지 개선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

\* 채석장: 돌을 캐거나 떠 내는 곳

---

**Disclaimer/Avertissement/Advertencia:**

Content used in IB assessments is taken from authentic, third-party sources. The views expressed within them belong to their individual authors and/or publishers and do not necessarily reflect the views of the IB.

Le contenu utilisé dans les évaluations de l'IB est extrait de sources authentiques issues de tierces parties. Les avis qui y sont exprimés appartiennent à leurs auteurs et/ou éditeurs, et ne reflètent pas nécessairement ceux de l'IB.

Los contenidos usados en las evaluaciones del IB provienen de fuentes externas auténticas. Las opiniones expresadas en ellos pertenecen a sus autores y/o editores, y no reflejan necesariamente las del IB.

**References/Références/Referencias:**

**본문A** 윤은숙, 류혜경, 조아라 and 홍승완, 2019. [노인의 날 기획] '키오스크 포비아' 무인기계가 두려운 노인들. 아주경제, [online] 30 September. Available at: <https://www.ajunews.com/view/20190929131615222#PL2> [Accessed 5 October 2022]. Source adapted.

**본문B** 김호연, 『불편한 편의점』, 서울: 나무옆의자, 2021.

**본문C** 윤희철, 2018. 포커스 도시 공간의 치유가 가져온 변화들. KOREANA, 한국국제교류재단 [online] Available at: <https://www.kf.or.kr/kf/na/ntt/selectDgtlDetailView.do?dgtlType=A&mi=1614&dgtlSn=3164&langTy=KOR> [Accessed 26 September 2022].